



‘인왕제색도-사계’. 겸재정선이 인왕산을 바라보며 담은 화폭을 현대 디지털로 재해석했다.



‘크로스오버 쇠라(Crossover Seurat)’. 쇠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와 ‘아니에르의 물놀이’를 마치 한 작품인 것처럼 설정해 원작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디지털로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이이남 작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크로스오버 쇠라’ 등 고전에 현대적 가치 입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6월까지 5작품 상영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참여해 만리동 광장 인근에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적 해학과 풍자적 요소가 결합된 ‘인왕제색도-사계’ 등 5작품을 오는 6월 19일까지(오후 6시-11시) 상영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은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와 영상콘텐츠 등 전자적 빛으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해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를 운영 중이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만리동 광장 부지 앞 우리은행 중립지점 전면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스크린이다. 2017년 9월 개장전에 이어, 2018년, 2019년 3년

간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독립영화, 기획공모 개인전, 미디어비엔날레 연계전 및 대외협력전, 시민 영상 전시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 작가는 ‘크로스 오버 쇠라’, ‘다시 태어나는 빛’, ‘김홍도-목죽도’, ‘아사 전에 매화꽃 피었네’, ‘인왕제색도-사계’의 고전에 디지털을 접목해 현대적 가치를 입힌 5점의 영상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영국 테이트모던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국내외의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되며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것들로 한 자리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대외협력전외

에 기획전시, 갤러리 연계전시(히든갤러리), 시민영상 전시가 동시에 개최되어 시민들의 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작가는 오는 5월 서울 사비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며, 율하반기에는 로마, 스페인,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등 해외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작가는 조선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조선대 일반대학원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작품세계는 자연의 현상과 삶의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낸 명화들을 차용해 생동감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화려한 디지털 이미지 속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이연수 기자

사단법인 ‘김시라 품바’ 발족 본격 활동 “시·도립 국극단과 협연 추진 활동 폭 넓혀갈 것”

각설이들의 애환이 녹아든 ‘김시라 품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단법인이 발족했다. ‘사단법인 김시라 품바’는 최근 작품이 탄생한 무안군에서 사단법인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극단 가가의회 박정재 대표와 드라마 OST, 공연, 영화 등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주리씨를 비롯 발기인 등 20여명이 참석해 정관을 상정하고 임원을 선임했다. 박정재 대표는 “가장 낮은 자들이 각설이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풍자했던 김시라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광주시립·전남도립 국

극단과 협연 추진 등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것”고 말했다. 김시라 품바는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자유당 말기까지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무안 결인촌에 정착한 각설이때 대장 천장근의 인생 역정을 각설이타령과 구전민요, 재담, 익살스런 몸짓과 춤사위로 풀어낸 일인극이다. 김시라의 각본과 연출로 1981년 초연됐다. 1인 14역을 맡은 각설이의 곱씹은 입담과 타령, 고수의 신명나는 장단, 관객을 참여시키는 마당극 형식, 정치풍자 등이 어우러져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1996년에는 한국 연극사상 최초 최장기



사단법인 김시라 품바가 최근 무안군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연, 최대관객 동원으로 ‘한국기네스북’에 수록됐다. 연기뿐 아니라 무대장악력까지 요구되는 품바 역할에는 1대 품바 정규수를 비롯해 정승호, 박동과, 김기창, 최종원, 박해미, 박철민, 문정수 등 당대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연수 기자

문피아 제6회 웹소설 공모전

독자들 조희수로 본선 진출 선정...총 상금 3억4천만원

“소설가가 되는 새로운 방식!”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는 한국 대중문학작가협회와 함께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전을 연다. 누구든 장르에 상관없이 중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문피아 홈페이지에 회당 3,000자 이상 작품을 최소 30회 이상 연재하면 작품이 자동 접수된다. 기존 문학상과 문예전을 압도하는 3억 4,000만원의 총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2005년 제정된 이래 신인 작가들의 새로운 등용문이 된 이 대회는 시간이 갈수록 관심과 권위를 쌓고 있는 데다 상금과

지 많아 문단 권력화와 다양성 죽이기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존 문예대회에 자극이 되었다. 독자들이 실시간으로 경쟁작을 읽을 수 있고, 조희 수로 본선 진출 작품을 정하는 만큼 심사의 공정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상 수상자에 1억2,000만원을 준다. 우수상 3명에 각 5,000만원, 장려상 6명에 각 500만원을 수여한다. 입선(10명), 신인상(5명), 특별상(5명)도 시상한다. 구체적인 내는 문피아 홈페이지(www.munpia.com)와 애플리케이션에 있다. /연협뉴스

국악공연 현장보다 더 생생하게

국립국악원, 유튜브로 VR콘텐츠 선포

국립국악원이 국립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VR 공연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립국악원은 이 VR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객석에서만 관람했던 국악공연을 무대 위에서 실연자와 함께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물놀이, 시나위와 같은 기악과 승무, 부채춤, 장구춤, 진주검무, 동래 학춤, 설장구춤 등의 전통무용과 판국, 사물놀이 등 연희와 춘향전 사랑가 등의 창극과 씻김굿 등 총 37가지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성해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각각의 공연은 1인칭 시점으로 근접 촬영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VR을 통해 실제 공연장에서조차 자세히 보기 힘든 연주자들의 손끝이나 무용수들의 세세한 동작까지도 눈앞에서 느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한

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혁신성장기반문화데이터기초 구축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국립국악원과 지방국악원(부산, 민속, 남도)에서 각 지역별 특색을 드러내는 국악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악기 소개와 공연 VR콘텐츠, 3D 춤 따라 하기 등의 콘텐츠도 함께 제작했다. 그 중 유튜브를 통해 우선 공개한 이번 콘텐츠는 8K의 고해상도로 촬영됐으며 KT, LG, SK의 VR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도 추진해 향후 재외한 국문화원을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등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이 취소·연기되는 가운데, 현장보다 더욱 더 생생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의 VR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오지현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설장구춤 VR 영상. /국립국악원 제공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직장인 “흠뻑이 좋아요”...외식업계 올라

“인생에서 최대의 성공은 ‘행복’이다”

전남농협 협소어 육종사업 발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콘텐츠의 미래”

전남농협 협소어 육종사업 발동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773-2522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4154-8277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